통권 제20 - 2호

다안

Checking Your Safety! **국민이 다 안전할 때까지**



☞ **홈페이지에서 안전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Checking your safety!
DAAN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 / 부설 다안전정책연구소
행정안전부장관 허가법인 행정안전부 안전교육지정기관
홈페이지 : www.daan.or.kr e-mail : daan@daan.or.kr
대표전화 : 1800-0237 팩스 : 042-486-0119
중앙회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09번길 17

통권 제20 - 2호

다안

Contents

03 다안특집
늘어가는 '산업재해'

04 지구촌 안전이야기
세계 도시 안전 지수 순위

05 생애주기별 안전
청소년기 납치·감금시 대처방법

06 7 대안전
[생활안전] [자연재난] [사회기반체계]
[보건안전] [범죄안전] [교통안전] [수상안전]

13 지부소식
제29회 안전교육지도사 개강 (인천남동구지부) 외

15 중앙회소식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교육 외

17 다안 추천영화
판도라, 도어락, 터널

18 다안이야기
안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19 안전골든벨
어린이들이 보행할 때는 차를 마주 보고...

20 안전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공지사항


www.daan.or.kr
국민이
다 안전할 때까지!
Checking your safety!
DA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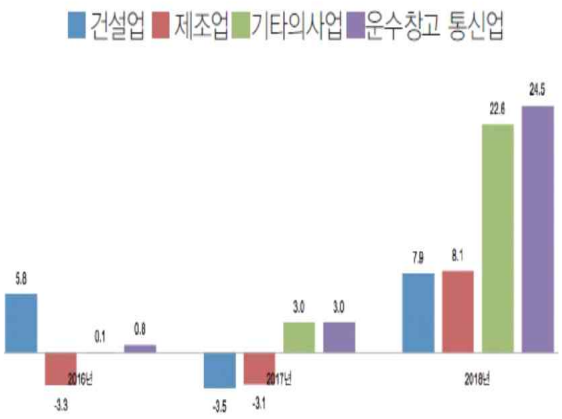
'산업재해'

우리가 편안하면 산업재해가 늘어난다?

✔ 산업재해란?

-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이며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

<주요 재해 업종 전년대비 증감율(%)>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업종은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산업 순이며 다음이 물류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운수창고 통신업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의 업종 중 전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창고통신업* 으로 매년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건설업은 2017년에는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8년에는 다시 늘어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18년에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기타의 사업의 경우는 2018년 증가폭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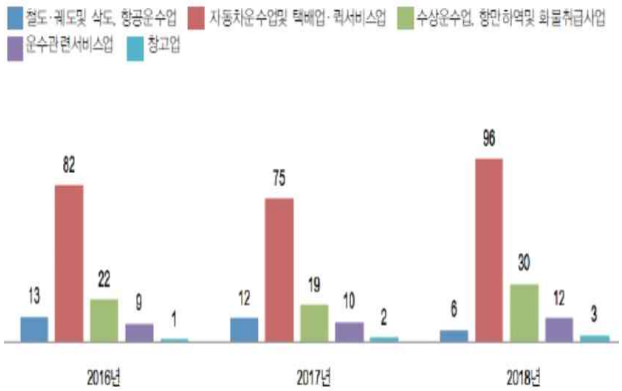
하지만 *운수창고통신업*은 지속적인 증가세는 물론이고 재해의 증가율의 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2016년 전년대비 0.8%증가에서 2017년 3%로 늘어났고 2018년에는 가장 높은 24.5%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한 관계자는 "물류현장에서도 그동안 사고가 적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재해가 많았고 노동자들이 산재처리를 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에도 원인이 있다"며 "기업도 굳이 큰 사고가 아니면 산재처리를 꺼리면서 나타나지 않던 재해 통계가 최근 들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도로 위의 재해'

<중분류별 산업재해 사망자수 (2016-2018)>





물류업종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7년 전년 동기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으나 2018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물류센터 내에서 많은 인명 사고들이 있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8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업종에서 사망자수는 재해자수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물류업종의 전체 사망자수 중에 70% 정도가 도로위에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에 이어 재해자수가 가장 많았던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의 경우 사망자수는 재해자 수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물류업종 중 유일하게 철도·궤도 및 삭도, 항공운수업의 경우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나머지 업종에서는 미세하게 사망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류업종의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업종에서도 "안전"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전체 산업 재해현황-업종별(산업별 중분류)

영국 이코노미스트 잡지 조사 부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 (EIU)'가 발표한 *'세계 도시 안전 지수 순위'* 에서 도쿄가 지난 2회에 이어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오사카순입니다.

이 순위는 **세계 주요 60개 도시**를 대상으로 57개 지표를 '사이버 보안', '의료 · 건강 · 환경 · 안전', '인프라의 안전성', '개인 안전'의 4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데이터이며 순위는 광범위한 연구와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세한 청취 조사를 거쳐 결정했다고 합니다.

분야별로는 **'사이버 보안'** 안전 1위는 도쿄, **의료 · 건강 · 환경의 안전성**은 1위가 오사카, 2위가 도쿄. **인프라의 안전성**은 오사카가 2위, 도쿄가 4위. **개인의 안전**은 도쿄가 4위, 오사카는 7위로 옆 나라 일본이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도쿄는 흉악 · 경범죄 발생률이 낮음은 물론 자연 재해의 방재능력 인프라, 컴퓨터의 악성 코드 감염률이 낮은 등 여러면에서 최고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욱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실행하여 언젠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World's Ten Safest Cities

2019 Rank	City	Country	2017 Rank	Change in rank
1	Tokyo	Japan	1	–
2	Singapore	Singapore	2	–
3	Osaka	Japan	3	–
4	Amsterdam	Netherlands	6	2▲
5	Sydney	Australia	7	2▲
6	Toronto	Canada	4	-2▼
7	Washington	U.S.	23	16▲
8	Copenhagen	Denmark	–	–
9	Seoul	South Korea	14	5▲
10	Melbourne	Australia	5	-5▼

<도시 안전 지수 TOP 10>

1 위 : 도쿄(일본)
2 위 : 싱가포르(싱가포르)
3 위 : 오사카(일본)
4 위 : 암스테르담(네덜란드)
5 위 : 시드니(호주)
6 위 : 토론토(캐나다)
7 위 : 워싱턴DC(미국)
8 위 : 코펜하겐(덴마크)
9 위 : 서울(대한민국)
10 위 : 멜버른(호주)

<청소년기> 납치·감금시 대처방법

우리사회에서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납치사건..

대부분의 사건이 학생, 그중에서도 특히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런 납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① 택시 이용 시 탑승 전 미리 번호판을 촬영하거나 차량번호, 탑승시간, 예상도착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고 하차 후 큰 도로를 이용하며 이동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도록 합니다.

②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고 본인의 모습이 CCTV에 잘 담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③ 평상시 위급상황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호신술을 몸에 익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위치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휴대폰 GPS기능을 항상 켜놓도록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치·감금 됐을 경우의 대처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장소와 탈출로 등을 파악한 뒤 급한 용무가 있다고 말하여 포박을 느슨하게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② 트렁크에 감금되었을 경우 트렁크에 비상 개폐장치를 이용해 탈출할 수 있습니다.

③ 테이프에 포박된 경우 팔을 머리 위로 올려 최대한 벌린 후 아래로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내리면 비교적 쉽게 테이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④ 발이 줄에 묶인 경우 신발과 양말을 벗어 공간을 확보 합니다.

⑤ 납치장소를 모를 시 주변의 소음, 좌회전 및 우회전 횟수, 차량 내부 대화 등을 잘 듣고 기억해 두었다가 탈출 시 참고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납치범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 수칙*을 잘 대비해 두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전기!

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요령 Q&A

Q. 단락(합선)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나요?

A.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용량의 것을 사용합시다.
용량에 적합한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노후되었거나 손상된 전선은 새 전선으로 교체합시다.

Q. 누전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나요?

A. 건물이나 대용량 전기기구에는 배선을 분류하여 배선별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합시다.
배선의 피복손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시다.

Q.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나요?

A. 각종 전기기기는 사용 후에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둡시다.
정전이 되면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둡시다.

Q. 과부하에 의한 전기화재 위험이 있나요?

A.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합시다.
전기기기의 전기용량 및 전압에 적합한 규격전선을 사용합시다.

Q. 과열에 의한 전기화재 위험이 있나요?

A.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놓고 외출합시다.
전기장판 등 발열체를 장시간 전원을 켠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기사고 발생시 연락처

한국전력 고장신고서 123, 전기안전공사 1588-7500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파'
겨울철 한파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아봅시다!

▶ *핵심 행동요령*

한파가 예보된 때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 한파 발생 시

-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노출 부분의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서는 안 되며, 따뜻한 물로 세척 후에 보온을 유지한 채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외출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 계획을 알려둡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 빙판길에서는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낮고 미끄럼이 방지된 신발을 신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 빙판길 낙상사고 줄이는 요령

①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입니다.
② 굽이 낮은 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을 신습니다.
③ 옷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습니다.
④ 응달진 곳을 피하고, 급격한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⑤ 움직임을 둔하게 하는 무겁고 두꺼운 외투는 피합니다.
⑥ 넘어질 때는 무릎으로 주저 앉으면서 옆으로 굴러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⑦ 진정제, 수면제 등 어지럼 유발 약물 복용자는 외출을 삼갑니다.

전세계, 테러비상 안전지대는 없다!

◈ *국가테러단체 위협 고조*

- 테러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로 확산
- 테러 목표가 다수의 민간인을 노리는 소프트타깃으로 변화

◈ *외로운 늑대 등 자생테러 증가*

- 특정조직이 아닌 정부에 대한 개인적 반감으로 자생적 테러 급증
- 우리 국민의 국제테러단체 가입시도 및 SNS를 통한 테러단체 지지표명 사례 발생

◈ *북한의 테러 위협*

- 공개적인 보복 위협 등 국내 후방테러 자행 우려
-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관광객 등 우리 국민 대상 납치 등 테러 우려

- *현재 위치에서 테러가 발생했다면?*

✔ 폭발물 의심물품 또는 차량 발견 시

① 절대 손대지 말고 신속히 대피 후 경찰에 신고

폭발물 반대 방향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탈출

✔ 화학·생물 테러

<증상> 눈물, 근육경련, 고열, 복통, 호흡곤란, 균형감각 상실 등

① 오염공기가 감지되면 손수건,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호흡
② 오염지역과 오염원을 재빨리 확인 후 신속히 현재 위치에서 탈출
③ 오염지역에서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경우, 비누로 얼굴과 손 등을 깨끗이 씻고 응급치료

✔ 방사능 테러

- 테러로 인해 방사성 물질에 노출·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① 원자력 시설, 방사성 물질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발생시 신속히 현재 위치에서 탈출
② 즉시 지하대피소나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

우한 폐렴 VS 메르스 VS 사스, 무엇이 다른가?

구분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발견 시점	2019년	2012년	2002년
발견 장소	중국 우한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유행 시기	2020년	2015년	2002년~2003년
감염 매개체	박취(추정)	박쥐·단봉낙타	박쥐·사향고양이
잠복기	2~4일(최장 14일)	5~6일(최장 14일)	2~7일(최장 14일)
전염성	사스보다 낮고 메르스보다 높음	사스보다 낮음	메르스보다 높음
		메르스 < 우한 폐렴 < 사스	
지역사회 감염력	있음	거의 없음	있음
세계 감염·사망자	4,534명·106명	2,500중 35% 사망	8,000여명·774명
치사율	2.3%	중동 30~40% 한국 20%	10% 내외
백신·치료제	없음	없음	없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①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②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③ 중국 방문시 현지 동물(가금류 포함)과의 접촉을 피하고 전통시장 및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하기

④ 중국 방문 후 호흡기 증상자는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1399** 에 상담하기

범죄안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 전문가가 전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시 대처 방법

"피해를 인지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주변의 조력**을 받을수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인데요.

① 유포된 사이트를 아는 경우에는 게시물 링크(URL)를 확보하고
②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하고 채팅방을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증거를 모두 수집한 다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설 삭제업체는 피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요구하지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무료로 상담 및 피해촬영물의 삭제 와 경찰 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채증) 작업을 도와줍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의료비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

-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 혼자서는 다니지 않도록 하고 혼자 다녀야 할 경우 꼭 마중을 나가주세요.
- 다른 사람이 몸을 만지려고 하면 "안돼요", "싫어요" 라고 크고 분명하게 말하도록 알려주세요.
- 집에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창문과 출입문을 잠그고 반드시 가족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 성폭력 긴급 전화상담 1366

교통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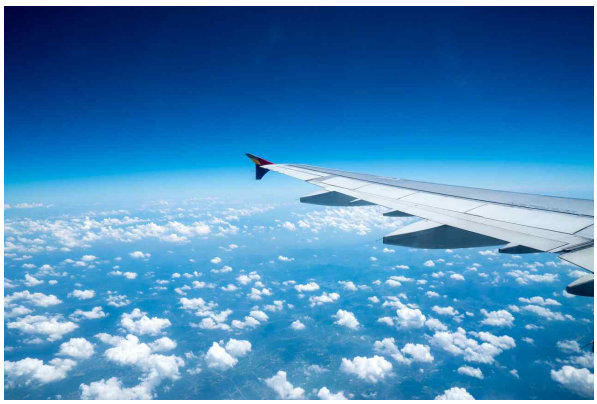
매해 늘어나는 해외여행! 비행기 이용에 따른 〈비행기 사고〉 대처방법

◈ 비상상황 발생시

- 승무원의 브리핑에 귀를 기울이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어린이나 노약자(환자)를 위한 **별도의 비상장비**가 있는지 승무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비행 중 비상용 산소마스크가 내려올 때는 보호자 먼저 마스크 착용 후 어린이나 노약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이용 시, 굽이 높은 구두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장신구와 소지품을 기내에 남겨두고 탈출합니다.
- 충돌 전 좌석등받이를 앞으로 세우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 항공기 여행시 주의사항

- 기내 수화물은 유사시 신속한 탈출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된 부피와 무게를 준수**합시다.
- 복장은 유사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합성 소재가 아닌 면과 같은 **천연소재 의류를 이용**합시다.
- 난기류 등에 의한 기체 요동에 대비하여 비행 중에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만일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비행 중 발생 가능한 신체·의학적 문제가 있다면 항공사 직원이나 승무원에게 탑승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 주세요.
- 출발 전 반드시 **배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배정된 좌석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항공기의 비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며 점점 늘어가는 국내 해파리 관련 사고!

해파리 접촉에 관한 응급 대처법

♣ 해파리 쏘임시 응급대처법

- 쏘인 즉시 환자를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쏘인 부위가 넓거나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호흡곤란, 의식불명) 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구조요원**에게 도움을 청한다.
-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공호흡을 비롯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쏘인 부위는 약 30초 정도의 시간 동안에 **충분한 양의 식초**로 뿌려주거나 담그게 한다.
- 해파리 쏘임시에 **알코올 종류의 세척제는 독액의 방출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금한다.
- 작은부레관 해파리의 쏘임시에는 **식초가 독액의 방출을 증가**시킬 수 있어 식초를 이용한 세척을 금한다.
- 남아있는 촉수는 제거해주고 **바닷물로 세척**해 준다.
- 테트라싸이클린(Tetracycline) 계열의 연고를 쏘임 부위에 발라준다.
- 열찜질 또는 냉찜질을 하면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해파리에 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

- 회초리로 맞은 듯한 발진과 **통증, 가려움증**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 시간이 지나면 **구역질, 구토, 설사, 복통**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 **혈압저하, 호흡곤란, 의식불명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부소식



1



2



3



4



5


6



7


8

1. 제9회 재난안전지도사 개강(경주)
2. 제2회 어린이안전지도사 수료(대전)
3. 제29회 안전교육지도사 개강(인천)
4. 제31회 안전교육지도사 수료(포항)
5. 제2회 실버안전지도사 수료(대전)
6. 제32회 안전교육지도사 개강(인천)
7. 제30회 안전교육지도사 수료(영등포)
8. 제3회 실버안전지도사 개강(경주)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전은 죽고사는 문제이다

지부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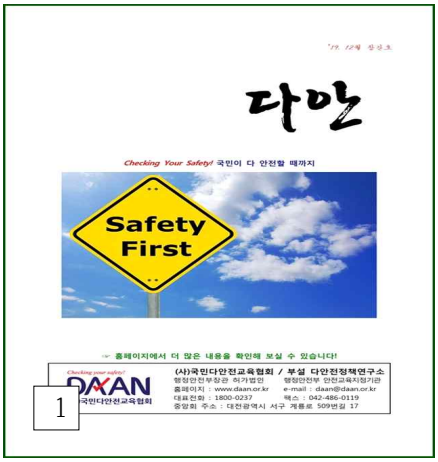






1. 김포 청소년행복나눔센터 안전교육
2. 경주 안전지킴이 찾아가는 안전교육
3. 경주 안전지킴이 평생학습 박람회
4. 경복대학교 의료미용과 심폐소생술 교육
5. 경주 찾아가는 시민(마을) 안전교육

중앙회소식



1



2


3


4


5


6

1. "다안 소식지" 창간호 발행
2. 다안 아카데미강좌 3기 개강
3.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교육 강의
4. 충남다문화거점센터 안전교육 강의
5.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설명회
6. 대전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원 안전교육강의

다안추천 한국재난영화



초대형 재난 블록버스터! <판도라>

누구도 겪은 적 없는 대한민국 초유의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에 이어 한반도를 위협하는 원전사고까지, 예고 없이 찾아온 초유의 재난 속에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사투를 그린 작품이다. 원전을 소재로 한 최초의 재난 블록버스터로 긴박한 스토리와 초대형 스케일, 그리고 뜨거운 감동과 휴머니즘을 담아냈다. <판도라>는 차별화된 소재로 2016년 초대형 재난 블록버스터의 대미를 장식한 영화로 꼽힌다.

1인 가구 범죄의 공포! <도어락>



열려있는 도어락, 낯선 사람의 침입 흔적, 혼자 사는 '경민' 의 원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며 시작되는 현실 공포를 그린 스릴러이다. 극 중 '경민'이 겪는 불안과 공포는 단순히 영화적인 상상력에 그치지 않는다. 나,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한번쯤 겪어 보았을 법한 설정을 통해 관객들은 초반부터 리얼한 상황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오직 혼자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와 낯선 자의 실체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숨막히는 극강의 스릴을 매우 밀도 있게 그려내 관객들은 '순삭'되는 러닝타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일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영화! <터널>

영화 <터널>은 무너진 터널 안에 고립된 한 남자와 변해가는 터널 밖의 이야기를 그린 리얼 재난 영화다. 주인공 '정수'는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의 직장인이자 아내와 딸이 있는 평범한 가장이다. 평소와 다를 바 하나 없던 어느 날, 매일 지나던 터널이 무너져 내리고 일순간 그의 일상도 함께 무너져 내린다. <터널>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인물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공감을 주며 관객들을 하나로 만들어버린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전은 죽고사는 문제이다!

안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삶의 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안전의 완성은 안전 생활화이며, 이는 안전의식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집니다. 안전의식이 안전 습관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안전 생활화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제4항을 근거로 2016년 국민안전처 장관의 법인설립 허가(2018. 8. 5. 행정안전부장관 허가법인으로 갱신 [제2016-16호])를 받아 국민 모두가 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안전교육지정기관**(제2018-4호)입니다.



다안'이란 국민다안전교육협회의 약어이기도 하며, **국민 모두가 다 안전**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7대 안전분야(생활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보건안전, 범죄안전, 교통안전, 수상안전) 전부 다 포괄하여 우리나라 제일의 안전문화 전문교육기관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 협회는 안전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사고예방 위주의 7대안전 전문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본 협회 안전전문 위촉강사 233명(2019년 12월 기준)을 통해 유아·초·중·고·대학교 학생과 교직원·기업·공공기관·복지단체·일반단체 등을 대상으로 상황별·계층별·맞춤형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 안전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안전정책을 개발하고 행정기관에 정책제안을 하며, 안전연구용역 및 조달청 발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 모든 임직원들은 본 협회의 슬로건 *"checking your safety!"*, **"국민이 다 안전할 때까지"**를 실천하기 위해 쉼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골든벨



제일 중요한 것은 " "입니다.

소극적이면 예방이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퀴즈로 안전의 의식화와 습관화, 생활화를 이뤄가며 안전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안전골든벨 퀴즈 시작합니다.^^

1. 어린이들이 보행할 때는 차를 마주 보고 통행하는 것보다 차를 등지고 통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O , X)

2..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 )

3. 눈 오는 날의 안전한 보행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미끄럼을 타거나 장난하지 않는다.

② 내리는 눈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

③ 날씨가 춥다고 움츠리지 않고 앞을 잘 보며 걷는다.

④ 장갑을 꼭 끼고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

* 골든벨 정답을 홈페이지 "다안소식지"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성명, 연락처 필수)

안전법령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 *이 규칙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이번 다안 1월호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련해 우리가 알아야할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 04. 20. 최종공표 내용입니다.*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3. 30., 2014. 1. 3., 2015. 7. 21.>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2012. 3. 30., 2013. 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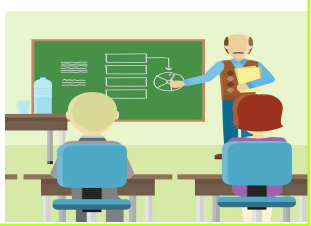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5. 7.21.>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7. 21.>

1.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교육기관





공지사항

( )국민다안전교육협회

1. 행정안전부장관 허가 비영리법인(제2016-16호)
2. 행정안전부 안전교육지정기관(제2018-4호)
3. 중앙회산하 전국 7개 지역본부 및 120개 지부 / 부설 다안전정책연구소

사업

안전전문 교육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행정기관 위탁사업
▪ 7대 안전분야 교육 ▪ 전국지자체 안전교육 ▪ 사이버민방위교육 ▪ 기업 및 학교 안전교육 ▪ 교원, 교직원 직무연수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안전교육지도사 ▪ 재난안전지도사 ▪ 실버안전지도사 ▪ 어린이안전지도사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 심폐소생술 전문교육	▪ 안전정책연구 사업 ▪ 안전연구용역 ▪ 학교 등 안전체험행사 ▪ 안전 콘텐츠 개발 ▪ 조달청 발주사업 ▪ 안전체계 구축사업

본 협회 조달청 입찰용역 분야

분 류	내 용	코드번호
학술연구용역	안전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사업	1169
안전소프트웨어 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1426
안전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1468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	1469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1470
기타자유업종	행정 및 공공기관 위탁사업	9999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안전체험 등 행사대행업	9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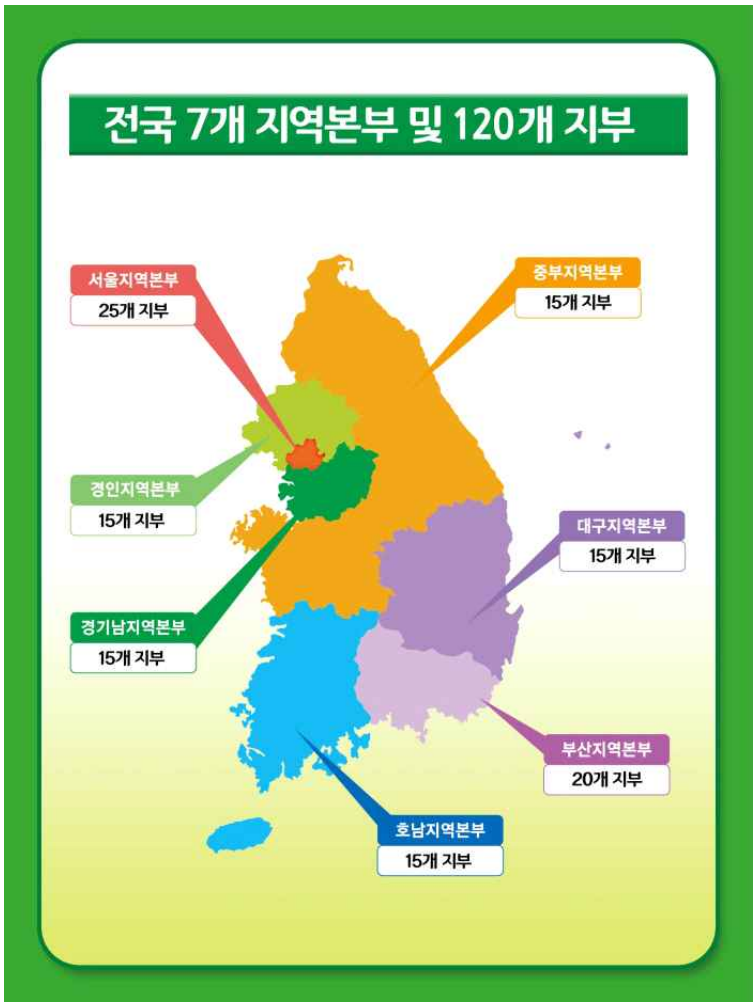
안전전문가(자격증 및 강사) 양성과정

정	등 급	주무부처	등 록	실시지역
	Ⅰ·Ⅱ	행정안전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006148)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울산, 포항, 경주, 수원, 평택, 의정부 등 -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지도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000210)	
실버안전지도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005611)	
어린이안전지도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001259)	
심폐소생술 전문교육	수료증	본 협회	2년간 유효한 수료증 발급	

* : www.daan.or.kr / **대표전화** : 1800-0237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전은 죽고사는 문제이다

( )국민다안전교육협회



발행처 :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

발행인 : 최헌규

편집인 : 김완규, 김영성, 정완택, 정희만, 박준성,
유지호, 김중배, 유영찬, 김보라, 이수정, 김은애

발행일 : 2020년 1월

홈페이지 : www.daan.or.kr

E-Mail : daan@daan.or.kr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ypadj

페이스북 : www.facebook.com/daan.or.kr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daanjeon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09번길 17

대표전화 : 1800-0237 / FAX : 042-486-0119